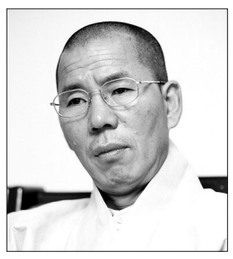
직지사 주지후보에 법등 스님 당선

112표 중 81표 득표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신임주지 후보에 법등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법등 스님은 10월 28일 직지사서 열린 주지 선출 산중총회서 112표 중 81표를 득표해 주지후보에 당선됐다.

법등 스님은 1961년 직지사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수계, 서울 조계사와 구미 도리사 주지, 제9~13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등 스님은 주지후보 선출 직후 "승려복지와 직지사 재정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형 불사보다 내실을 다져 모범적인 교구본사가 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출가자 급감에 조계종 '총림' 위상 흔들

총림실사 보고서 공개…정원 · 구성요소 미달 태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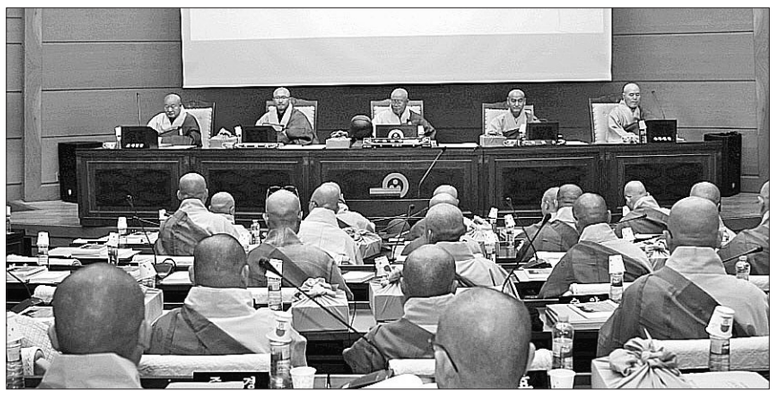
지난 2012년 8대 총림으로 확장된 조계종 총림 체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조계종의 총림 실사 결과 8대 총림 교육기관의 대부분이 정원미달일 뿐만 아니라 태반이 염불원 · 율원 등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열린 제207차 정기회에서 총림 실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8대 총림 중 1개 기관 이상에서 인원 미달을 지적받은 총림은 금정총림 범어사, 팔공총림 동화사, 덕숭총림 수덕사, 쌍계총림 쌍계사, 조계총림 송광사, 해인총림 해인사 등 6곳이다. 종령에는 승가대학 등에 학년 당 10명, 총 40명의 최소정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이 요건을 총림 대부분이 충족시키지 못했다.

총림실사특위는 실사보고서에서 "출가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총림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며 "교육 내실화를 위해 출가자 확보 노력과 함께 행자교육환경 개선, 교육기관 통폐합 등 다각적인 연구가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 따르면 총림법에 규정된 총림 요건인 선 · 율 · 강 · 염불원의 4개 기관을 모두 갖춘 총림도 전무했다. 대부분이 최근 총림 요건으로 확정된 염불원이 미비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와 고불총림 백양사는 율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불총림 백양사의 경우 2016년 6월 율원을 말사인 용흥사로 이전해 시정조치를 받은 상태다. 총림실사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염불원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위선 종립대 '승려 미달' 지적
2013년 제도화 염불원, 설치 전무
시스템 정비 필요성 종회에 제기



제 207차 중앙종회 정기회 개회 모습. 종회 보고사항에 총림실사 내역이 공개됐다.

역피라미드 형 승단 구조 고착화

이 같은 문제는 출가자 급감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교육원에 따르면 2015년 204명 이었던 출가자 수는 2016년 현재 157명으로 200명 선이 붕괴된 상태다.

총림 실사에 나섰던 종회의원 조격 스님은 10월 31일 출가특위 회의에서 "중앙승가대는 120명 학년 정원 중 입학자가 40명에 불과해 학사운영이 어려울 지경이며, 동국대에도 학인 스님이 없어 강좌가 폐강되고 있다"며 "실사에서도 총림 측에서 출가자 급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강하게 호소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출가자 급감 속에 승단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회의원 태원 스님의 종책질의에 대한 총무부의 법계별 품서인원 현황 공개에 따르면 승랍 25년 이상의 종덕 · 현덕 법계 대상자는 2014년 대상자가 없었지만 2015년 302명, 2016년 262명으로 증가했다. 출가자에 비해 100여명 가량 많은 상황이다.

승단의 고령화 속에 만 5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은퇴자 출가제도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위가 제207차 정기회에서 공개한 은퇴자출가에관한특별법(이하 은퇴자특별법)에 따르면 은퇴출가자는 만 51세부터 70세 이하의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승단에 고연령대의 승려들이 많기에 은퇴출가자의 활동범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은퇴출가자는 계단법과 법계법, 승가고시법, 승려법, 교육법, 승려복지법 등을 적용받지 못하며 교육은 청강만이 가능하다. 선원에서의 수행도 경력 등에 인정되지 못한다.

종회의원 정산 스님은 "승가대학을 종립대학의 지방교육기관으로 편입, 상호인원을 확보하고 승가대학의 커리큘럼 전문화 등을 통해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사업국장에 선문 스님 임명

조계종 사업부에 대한 마지막 인선이 이뤄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일자로 선문 스님을 조계종 총무원 사업국장에 임명했다.

조계종 사업부는 지난 3월 총무원법 제정 이후 7월 11일 사업부장 각운 스님을 비롯한 팀장 · 팀원 인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실무를 책임질 사업국장직은 공석이었다. 이번 사업국장 임명으로 진행 예정인 사찰 설계사무소 설립, 사찰 연계형 전세버스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문 스님은 묘정 스님을 은사로 1993년 수계(사미니계)했으며, 동학사 승가대학 및 동국대를 졸업하고 뉴욕 헌터 칼리지에서 사회학 학사, 뉴욕 롱아일랜드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노덕현 기자



사업국장 선문 스님이 11월 1일 자승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자승 스님, 문재인 前 대표에 "대승 정치를"

11월 1일 최순실 게이트 수습 조계종 예방 자리서 조언

'정무방소 명대승심' 화두
안철수 대표와 같은 조언
"정치 초심 잃지말라" 풀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문재인 前 대표에게 '정무방소 명대승심' 화두를 전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문재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문 前 대표에게 '정무방소 명대승심(政無方所 名大乘心)' 화두를 전하고 국민을 위한 '대승정치'를 당부했다.

먼저 최근의 정국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문 前 대표에게 자승 스님은 "선문답에 '정무방소 명대승심'이라는 말이 있다. 이미 정치권 내에 문제의 해답이 있기에 충분히 해결 되리라 본다"고 답했다.

자승 스님은 지난 1월 안철수 국민의당 前 대표의 조계종 예방과 3월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서도 같은 '정무방소 명대승심' 화두를 전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당 창당을 준비 중이던 안철수 前 대표의 예방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이 화두에 대해 "정치에는 방소(방향과 장소)가 없고 미적분처럼 딱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치에서 명심할 것은 '대승심'뿐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을 위하는 초심에서 당당하게 임하라"고 조언 한 바 있다. 이를 들은 문 前 대표는 현재 정국의 발생이 정치하는 모든 이들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前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해왔기에 이번 위기도 극복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계기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재 국민들이 고통 속에 지내고 있고 직접적으로 대통령 하야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치로 지혜롭게 사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문 前 대표는 이어 "정치하는 이로서 박근혜 정부 출범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현재 정치인들의 셈법이 다 다른데 대승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때"라며 "종교계에서도 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으는데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이에 대해 "현재 각 정당 대표들의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문 前 대표는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이다. 문 대표가 지혜를 모으는 데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의승 추념사업, 전방위 접근 필요하다"

김상영 교수, 영규대사 · 의승군 조명 세미나서



"임진왜란 시기 활동한 의승은 역사의 의인이자 위인으로서 위상을 지닌다. 이들을 추모하고 선양하는 사업은 불교계뿐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서 전개돼야 한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사진〉는 11월 4일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서 '영규대사와 800의승-그 역사와 가치를 조명한다'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서 의승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추념사업에 불교계가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임진왜란 참전 의승의 공적과 추념사업'을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의승 추념사업을 위한 과제로 △호국의승의 날 제정과 관련한 불교계 노력 △〈한국불교 의승자료집〉 간행 △교과서 수록 내용 수정 및 확충 △각종 추념시설 설립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조선시대 의승군 활동이 지니는 역사적 공훈을 감안할 때 '호국의승의날'은 '다른 기념일과 유사 · 중복 여부 및 형평성'에서 의병의날, 현충일, 순국선열의날 등과 그 성격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다"면서 "국난극복을 위해 전쟁터서 장렬하게 목숨 바친 의승군의 넋을 추모하고, 희생정신을 선양하는 일은 충무공 탄신일에 견주어 부족함이 없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승 추념사업에 대한 불교계의 미온적인 움직임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14년 8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호국의승의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식'이 봉행됐다. 하지만 올 1월 총무원장 스님과 행자부 장관 면담 이후 더 이상 반가운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되는 불교사회연구소 호국불교 관련 사업 역시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종도들의 경각심이 발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승의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의 모습으로 후손에게 계승되도록 추념시설 확산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대한불교법화종 종도들에게 알리는 호소문

본 종단은 묘법연화경의 회삼귀일의 대중교리를 봉체하여 일심삼관과 교관중수 개시오입불지견하는 제세안민의 홍법호국함을 종지로 하여 창종한 지 70년이 된 자랑스러운 종단입니다. 종도들 모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종단이 최근 연속된 불미스러운 일로 명예가 끝없이 실추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단을 대표하는 수장인 총무원장이 종단 내 사유사암인 교헌사 창건주 (주)유일스카이와 관련하여 대가성을 가진 거래에 연루되어 종단 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 거래라고 의심받고 있는 부분은, 교헌사 전 주지 지명(조영국)스님과의 거래, 안정사 주지 취임 이후 유일스카이의 사내 사업을 약속하고 지원 받은 로펌 변호사 수임비용 등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승려 생활 중의 생업활동 과정이 종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부적격하다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고, 본 종단에 입종하기 전 법랍이 확실하지 않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와 각 교구 원장 스님들을 포함한 종도들의 신뢰 회복도 되지 않아 지금은 총무원장 직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 종단의 집행부와 각 교구의 종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종도들은 대한불교법화종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현 종단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총무원장의 사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추후 총무원의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궐기문을 보는 법화종도들은 종단의 현 위기를 애종심으로 관심가지고 응원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위 원 장	**암 현** (현 총무원 기획실장)	고 문	**도 수** (현 충북교구종무원장)	위 원	**송 현** (전 마산교구종무원장)	위 원	**지 암** (부산교구 도성암 주지)
부위원장	**도 광** (현 경북교구종무원장)	위 원	**법 원** (현 창녕교구종무원장)	위 원	**현 묵** (현 총무원 총무국장)	위 원	**무 원**
부위원장	**광 래** (현 경주교구종무원장)	위 원	**진 우** (현 강원교구종무원장)	위 원	**관 효** (제주교구 혜관정사 주지)		

2016년 10월 26일

비 상 대 책 위 원 회